

TV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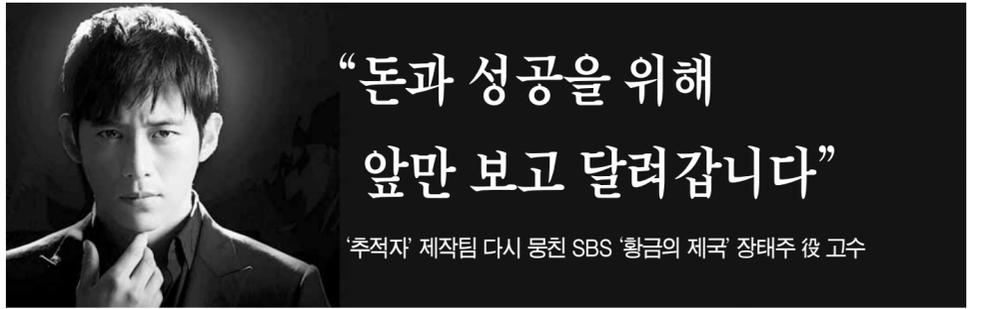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06:00-14:00)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Horoscope section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돈과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추적자’ 제작팀 다시 문천 SBS ‘황금의 제국’ 장태주 役 고수

배우 고수(사진)가 지난해 화제작 ‘추적자’의 박경수 작가와 손을 잡았다. 고수는 박 작가의 신작 SBS ‘황금의 제국’에서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뛰어든 청년 장태주를 연기한다.

비를 많이 하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납다른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추적자’의 애청자였다 그는 “박경수 작가가 신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끌렸다”며 “마침 제의가 와서 영광스럽게 작품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용담하고 버려진다. 복수심 속에 야망에 눈뜬 그는 최고의 자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고수는 “태주는 평범하게 자라다 욕망이 들끓는 싸움터로 들어가는 역할”이라며 장태주를 연기하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4인 4색’ 네 여자의 결혼이야기

SBS TV가 ‘출생의 비밀’ 후속으로 오는 29일 처음 방송하는 ‘결혼의 여신’은 네 여자의 4인 4색 결혼이야기다. ‘101번째 프로포즈’ ‘프라하의 연인’의 오진석 PD가 메가폰을 잡았고, ‘솔약국집 아들들’ ‘사랑을 믿어’의 조정진 작가가 각본을 썼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인 ‘결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그렇기에 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는 다채로운 색깔을 뽐낼 수도 있고, 자칫 ‘아찔’할 수도 있다. SBS TV가 ‘출생의 비밀’ 후속으로 오는 29일 처음 방송하는 ‘결혼의 여신’은 네 여자의 4인 4색 결혼이야기다.

이태란은 “내년에 마흔 살이 되는데 이드라마를 하며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며 “결혼을 (지금) 하지 못하더라도 결혼하면 더 멋지게 살 수 있게 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결혼관을 소개했다.

TV Highlights section featuring articles on '여름철 원기 충전 음식 여행', '비행기 비즈니스석 생존술은', '36시간 쉬지 않는 꿈치잡이', and '세상의 모든 다큐'.